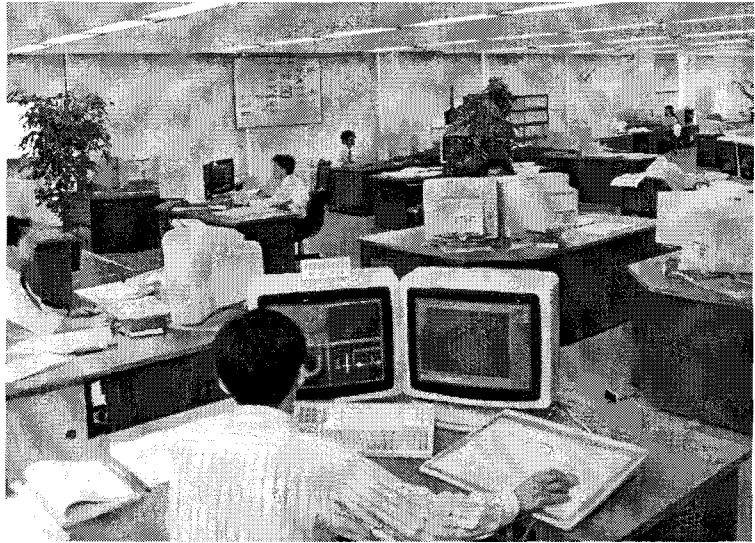


# 21세기 세계적 EPC Contractor로 도약하는 기업

## 대림엔지니어링



배관 건축 자동화 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는 3D-CAD실 전경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태동기에 설립된 대림엔지니어링

대림엔지니어링(주) (이하 DEC)은 지난 74년 창립 이래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의 낙후성과 국내 시장의 협소함을 절감하고 기술의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기술인력을 보유한 종합엔지니어링회사중의 하나이다.

DEC가 출범할 당시인 지난 '70년대 중반,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와 기술력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같았던 상황으로 일부 상설계 분야를 제외하고는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플랜트

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링산업의 거의 전 분야가 외국 엔지니어링업체에 맡겨지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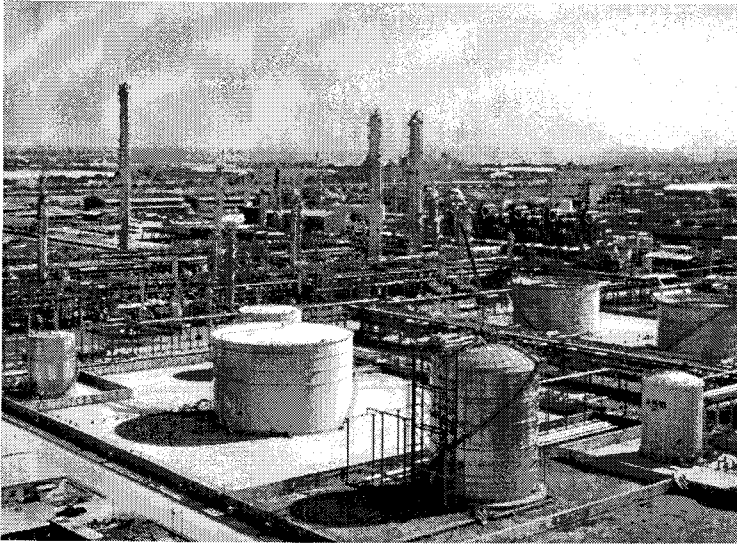
특히,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회사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플랜트 건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부문의 기술이전을 극도로 기피하여 국내기업들의 엔지니어링관련 기술습득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때 故 이재준 명예회장은 국가산업발전은 플랜트 건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명성을 쌓고 있던 대림산업(주)의 전문 기술인력을 주축으로 DEC 설립인원을 대거 선발, 김병진 現

대림엔지니어링 회장을 비롯한 일부 STAFF을 미국 유명 엔지니어링회사인 CATALYTIC사에 파견하여 엔지니어링기업의 운영에서부터 기술습득에 이르기까지 DEC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 국내대형 터키프로젝트 온산 동제련소 건설프로젝트 시작

이러한 1년여에 걸친 준비작업으로 인해 DEC는 설립초기부터 독자적인 엔지니어링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76년에는 당시로써는 국내 초대형 프로젝트중



국내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수준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태국 타이 올레핀사의 OLEFINS PLANT 전경

의 하나였던 온산 동계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터키로 수주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대림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외 현장의 경험을 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외에서의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DEC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의 닳을 올려 지난 '80년 국내 엔지니어링사로서는 최초로 이집트 국영석유공사(EGPC)가 발주한 총 15억불 규모의 가스플랜트 건설공사를 터키 베이스로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필요성을 느낀 DEC는 '80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및 이집트 카이로 지점 설치를 시작으로 '8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지점, '85년 일본의 동경지점, '91년 태국현지법인 설립, '92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95년 필리핀 현지법인등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진출을 시도하여 현재에는 6개국에 현지법인을 그리고 13개국에는 해외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신의 엔지니어링관련 기술 및 정보 수집 그리고 영업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94년 9월 미국 HOUSTON에 DAELIM AMERICA INC.(DLA)를 확장이

전하였고 '96년 2월에는 해외 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매를 전담하기 위해 이태리 밀라노에 구매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DEC는 설계부문의 OUTSOURCING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종합협력사의 운영과 별도로 인도 뉴델리에 인도 현지법인(DECIL)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지법인과 해외 현장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GLOBAL NETWORKING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GLOBAL NETWORKING은 한 국내 DEC본사를 KEY STATION으로 하여 해외 각 현지법인 및

지점 그리고 PROJECT현장간의 전용회선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한 PROJECT 수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본사에서 작성한 도면 및 기타 문서들을 PROJECT현장과 지점등에서 동시에 받아봄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GPP PROJECT 등을 비롯한 일부 대형 턴키 프로젝트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DEC는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난 '96년 5월에는 선진엔지니어링사들도 개발하지 못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배관 견적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PLANT를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경로의 입력만으로 최적의 배관 경로와 물량을 자동 산출하는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DEC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DEC는 산학연 협동차원에서 포항공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황화합물 제거용 SPOR PROCESS'를 개발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재 각종 PROCESS에 대한 3건의 국내의 특허출원과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개

발부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국내엔지니어링업체 수주사상 최대규모 태국 TOC PROJECT

DEC의 해외진출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84년 인도네시아의 'BUNYU GAS PROJECT', 인도네시아의 'MALAMINE PLANT', 태국의 'POLYOLS & LATEX PLANT' 등 동남아 등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해 오던 중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란 TPC사가 발주한 1억6천만불 규모의 'TABRIZ PETROCHEMICAL COMPLEX LINE A PROJECT' 수주를 시발로 '91년 12월에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끝에 국내엔지니어링업체 수주사상 최대규모였던 총 5억불 규모의 태국 TOC사의 'THAI OLEFINS PLANT PROJECT'를 수주함으로써 국내의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 당시 과연 DEC가 이런 초대형 턴키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의심을 가졌던 일본 엔지니어링사들도 DEC의 기술력과 성실한 시공으로

'95년 8월, 마침내 PLANT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자 일본의 엔지니어링업체들은 REST-RUCTURING이다, OUTSOURCING이다 하여 경쟁력강화에 주력함으로써 한국 엔지니어링사들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DEC는 '95년 6월에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사로부터 6억1천만불 규모의 가스플랜트 5&6호기를 수주함으로써 또 한번 국제적인 엔지니어링사로써의 大林의 성가를 드높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DEC는 업계 최초로 중국 진출을 시도하여 중국 SINOPEC사의 'DAQING POLYSTYRENE PLANT'를 수주하여 올해말 완공 예정이며, 필리핀 'BATAAN REFINERY EXPANSION PROJECT', 인도 국영석유공사의 'HAZIRA GAS PHASE III EXPANSION PROJECT'를 수주, 이들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체 매출액에 있어서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77%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

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은 물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E & C 체제를 통한 경쟁력 극대화

DEC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95년 매출 4500억원중 해외매출이 70%이상인 3100여억원을 달성한데서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난 92년, 당시 DEC 사장이었던 김병진 회장은 이러한 국제화 및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과학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고, 회사로서는 이듬해 무역의 날에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DEC는 이러한 경영성과를 보다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DEC의 모기업인 대림산업(주)과의 업무 통합(E & C)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즉, E & C는 DEC의 엔지니어링 부문과 대림산업의 건설부문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및 사업수행 부문에서 서로의 장점을 특화해 나가며 이를 통한 해외 선진엔지니어링사들과의 경

쟁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초대형 턴키프로젝트 수주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DEC는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발전사업 부문을 강화하여 최근 인도네시아 SIBOLGA & AMURANG 지역의 총 310MW급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공사(3억 5천만불 규모)를 수주하는 등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정유에서부터 석유화학, 가스, 발전부문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대림그룹 차원에서 추진중인 민자 LNG 관련 SOC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LNG 인수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관련부문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세계적 EPC CONTRACTOR를 향하여

이러한 DEC 경영성과의 배경에는 '92년부터 실시해 온 경영혁

신운동 「DIET PRO 50」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DIET PRO 50」운동은 DEC가 최근 이룩한 경영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혁신 MIND'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한 장기경영전략 「DEC 21」역시 회사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DEC임직원들이 21세기 비전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DEC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2004년에는 수주 4조원, 매출 3조원을 달성함으로써 고도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세계적 EPC CONTRACTOR로 도약」한다는 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기 실행전략 「ACTION PLAN '97」을 수립하여 내실위주의 경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이외에도 BR을 통한 업무혁신, 新엔지니어링문화 창달을 통한 인간 중심의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등 "21세기 세계정상의 新엔지니어링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해 나가고 있다. 